

목포시, 2024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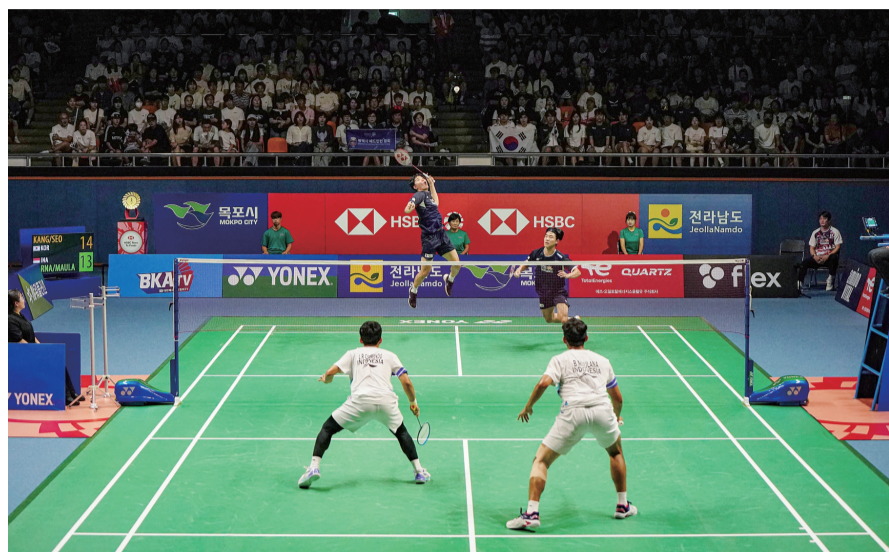
관람객 6천여 명 경기장 방문
시, 편의성·안전점검 등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명품도시 기반
“스포츠 관광도 위상 갖춰”

2024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6일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19개국의 250여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높은 경기를 펼쳤다.

이 기간동안 총 6000여명의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향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총 5개 종목 중 2개 종목(여자 단식 1개, 여자 복식 1개)에서 1위를 차지했고 남자복식 1개 종목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목포시 제공

세계 20위 정나은(화순군정)-김혜정(삼성생명)은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펠리 탄-티나 무랄리타란(말레이시

아)를 2-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15위 김가은(삼성생명)은 여자 단식 결승을 앞두고 세계 6위 왕즈이(중

국)의 무릎 부상 기권으로 행운의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주목을 끌었으나 아쉬움을 남긴 선수들도 있었다.

남자복식 세계 5위 서승재-강민혁(이상 삼성생명)은 결승에서 세계 174위 레오 롤리카르난도-바가스 마울라나(인도네시아)에 패했고, 2024 파리올림픽 혼합복식은 메달리스트였던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 여자복식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 이유림(삼성생명)-신승찬(인천국제공항), 여자단식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은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시며 3위를 기록했다.

목포시는 이번 배드민턴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쏟았다.

대회 전일 실내체육관을 찾아 관람객 동선의 편의성을 점검하고, 소방·전기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했다. 또 경기 시작 전 연습경기에 매진 중인 선수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경기 마지막 날까지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펼쳤다.

목포시는 이번 국제대회 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대회 생중계를 통해 다시 한번 목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남자복식 경기 관전 후 “목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국체전 및 전국단위 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대회 유치로 스포츠와 관광을 함께 발전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

월 최대 25만원 3년간 이자 지원

목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46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중 1명은 만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1가구다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1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서류 및 소득수준 등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진행중인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9월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보건소, 하반기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목포시 보건소는 9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 어르신 등에게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소는 치과의사회와 목포과학대학교, 초당대학교 치위생학과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 구강 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진행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구강 건강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지난 8월까지 5527명에게 구강 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어르신 무료 치석 제거 사업, 불소양치용액 배부 사업 등 여러 구강보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구강보건실(061-270-8901)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청년 대상 심리 안정·건강 증진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진행중인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9월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목포시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6회 계획, 운영 중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진행된 웰니스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인 아로마 테라피와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필라테스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진행된 웰니스 프로그램은 명상풀, 머드 테라피, 해수 미스트 등 5가지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해양 치유의 효과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다.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고광주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장

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남은 3회의 프로그램도 웰니스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년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시민중국어 무료강좌 수강생 모집... 27일까지

목포시가 오는 27일까지 시민 중국어 무료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주3회(월·수·금, 14:00~15:30)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사의 지도 아래 중국어 기초 발음과 상황별 회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인원은 총 50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전자우편(cey1977@korea.kr) 및 방문접수(전

략산업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재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략산업과(061-270-8457)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외국어 학습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강좌가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목포시는 오는 13일까지 바우처 택시(사진)사업자를 추가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일반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비활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신부)의 이동 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돼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총 15대로 운영될 바우처 택시는 목포



내를 전담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관외 운행이 증가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이고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목포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가능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가 증가되면서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활체어 교통약자와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돼 이동편의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